

## 민주노총

# '97년 임단투 현황과 전망

이상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직국장

### 1. 97년 임단투 현황

예년에 비해 매우 늦게 시작된 97년 임단투가 6월들어 본격적인 교섭기에 돌입하고 있다.

6월 3일 현재 임금교섭을 시작한 노동조합은 453개로 전체의 49.2%이다. 이는 작년 6월 5일의 57.1%와 비교할 때 교섭 속도가 매우 늦은 편이다. 이렇게 임금교섭이 늦게 시작된 것은 총파업으로 애초에 임단협 준비가 늦어진 점도 있지만 연맹별로 공동교섭을 하고 있는 경우 사측에서 교섭에 제대로 임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공동교섭에 대한 교섭권시비로 인해 교섭

속도에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6월 초부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한국통신 등 제조업과 공공부문의 중심사업장이 교섭에 돌입함으로써 이미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노련, 병원노련, 민철노련 소속 노조들과 함께 민주노총의 주요 사업장들이 단체교섭에 들어갔다.

이러한 가운데 공동교섭과 제3자개입에 대해 공개적인 지지공세를 펴고 있는 자본측은 6월 2일 현대중공업의 해고자 9명을 강제연행하고, 삼성중공업의 이재용씨 해고에 맞서 지원부쟁을 전개해 왔던 마창지협의 홍여표 의장과 이재용씨를 비롯한 간

부 5명에 대해 긴급체포장을 발부하였고, 6월 17에는 지난 5월 17일의 김희진을 이 유로 체포장을 발부하였다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김현 진주시협 의장을 또다시 구속하는 등 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는 예년에 비해 아직까지 전국적인 쟁점이 떠오르지 않고 있는데 최근의 소위 '금융개혁' 문제처럼 입단투의 진행과 맞물려 주요한 쟁점들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조직별로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병원노련과 현충련의 단협계약안, 민철노련과 한국통신, 조폐공사의 전입자 축소, 전문노련과 금속연맹의 공동교섭 거부, 자동차연맹의 자동차산업 구조조정문제 등을 들 수 있고 대다수의 노조에서 교용문제가 걸려 있다. 아울러 한국통신, 서울·부산지하철, 지역의보, 현대중공업 등에서 해고자 복직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각 조직의 투쟁 일정이 나 쟁의현황으로 볼 때 7월 초 이후에 투쟁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철노련은 7월 3일, 전문노련은 7월 8일부터, 병원노련은 7월 8일경(6/23~27 동시 조정신청)을 파업돌입 날짜로 잡고 있으나 나머지 조직들은 아직 구체적인 투쟁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난 5월 29일 중앙위원회에서 총력투쟁 시기로 확정하였던 7월 1일~7월 5일보다는 일주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쟁의행위 결의 중이거나 쟁의에 돌입한 노조는 건설노련의 삼한기업, 금속연맹의 캄코, 사무노련의 한국산업증권, 자

동차연맹의 만도기계, 전문노련의 한국선력기술, 두산유리와 대구본부의 태경불산을 비롯한 8군데이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낸 조직은 금속연맹 산하 4개 노조를 포함하여 모두 6곳이다. 그리고 국민대노조(6/10), 대한시멘트(6/5), 조폐공사(6/12), 건강노동대분회(6/18)와 서령택시를 비롯한 서산의 3개택시노조(6/17), 경주의 금야교통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아직까지는 파업돌입 노조 수가 적고 대규모 사업장이 쟁의에 돌입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점점 파업노조 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 조폐공사와 만도기계가 6월 25일경에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투쟁분위기가 고양될 것으로 보인다.

## 2. 97년 입·단투 전망

우선, 97년 입단투를 힘차게 전개하기 위한 주객관적인 조건을 타산해 보자.

첫째, 전국적인 쟁점사항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

현재 각 조직별로는 몇 가지의 현안문제가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 전국적인 쟁점으로 부각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또 96년처럼 '노동시간단축'이나 '직업증진권', '해고자복직' 등 조직별로 공동의 쟁점사안도 뚜렷이 부각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최근에 자동차연맹의 '자동차산업 구조조정문제', 민주금융과 사무노련의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

〈표 1〉 각 조직별 임단협 진행 현황

조직명	요구안	교섭권위임	교섭방식	주요쟁점	조정신청	주요계획
건설노련	10.6%±0%	18개(8개남용)	대각선교섭돌입	부도 16개노조	6/16~20	
금속연맹	9.9%±3%	80개 노조 위임	총괄지역 5개 일반교섭 아남4사대각선돌입	해고 등 노조탄압 노동교섭거부	6/23~27	6/11 지원면대서명 기자회견 6/9 조선 6사회의 6/11 아남4사 질풍투쟁
대학노련	10.6%±13%	16개노조(3개 남용)	대각선 교섭돌입			1개노조 경의행위관련
병원노련	12.8% ± 2%	90개 노조 위임(75%)	집단교섭 및 대각선교섭 돌입	대행권 계약안 (전임자 임금 등)	6/23~6/27	본계병원타격투쟁(6/16~18), 노조별협동,명함달기(6/1~2주) 6/24 난위노조공식집회
민주금융	노조별	전체노조		금융민중화투쟁		
사무노련	7.95%±3.45%		행위회합 중구			협의회별 논의 조직
언론노련	최소한 불가협상분	3개노조	대각선교섭	임금총결투쟁	중앙일경노력	주요일간지적협 없음 주요노조계약안 제출
시설노련	노조별					
출판노협	노조별					
외보노조	가5.5%(타격) 총액 9.8%		6개 단합2차교섭	고용안정, 해고차별지 전임자	중앙일경노력	6/11~12 거부결 수리회
자동차	9.9% ± 1%	16개노조	대각선노조협동	근무사실공 비밀교섭거부	6/25	6/9주요노조의 면도투쟁집회 6/13 삼성양심회 6월말 1차 투쟁집중 6/16~18 현상3.전주전 6/20~25 임무승려대회
전 광 노	자화별 진행					
연립노협			포괄교섭돌입			
전 교 조	단결의자유 쟁취			회원투쟁계		5/28지방대 장인기반대회
전동노련	10.6%	82개노조	집단교섭 및 대각선교섭돌입		6/25~27	7.5쟁외행위투표,7.5심화 7/7총의대회, 7.8총력투쟁
민철노련	10%~11% - 정액13,000	위임		선임자축소 논 계약안 다수	6/17	6/9 연맹총방식,6/17 조정신청 6/25~27전반투표 7/3총력투쟁예정
민주택시	승수익금 전월권리제			전직협동자 요구		총상인의 승려투쟁
항공통신	11.8%			해고차별지 노협원범위 전임자수		교섭위원 수권회
화물노련	11.6% ± 3%	9개노조				5원발교섭위원회등
화학연맹	10.6% ± 3%	3개노조	여러노조 대각선교섭예정		6/16~20	
대 노 협	9.7% ± 3%	전노조위임	그룹차원 공통요구서 전달			5/30 생의지원시정주 그룹교섭거부에 대응투쟁
원 총 연	9.76% ± 2%	9개 노조	그룹차원 총동교섭시도	그룹에서 총동교섭거부	6/25경	6/11일대,전진대회 7/7쟁외행위한반투표

안 문제' 등이 전국적인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입단협의 진행과 맞물려 전국적인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올해 총력투쟁의 전국적 공동요구로 제기하고 있는 '공동교섭 쟁취, 3자 개입 금지 무력화, 전임자 축소 저지와 임금감축 반대, 고용안정 보장' 등 입단협 4대 요구와 '사회개혁 13대 요구'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나간다면 전국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둘째, 투쟁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현재의 조직별 일정을 감안해 본다면 지난 중앙위원회에서 확정되었던 7/1~7/5의 총력투쟁시기는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칫 전국적인 쟁점이 부각되지 않고 있는 올해의 입단협에서 투쟁 시기마저 늦어지면서 집중하지 못한다면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구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총력투쟁 시기는 조직별 현실을 감안하여 완급을 조절하되, 확정된 시기를 확실히 준수하는 것이 관건이다.

세째, 중심노조를 설정하기 어렵다.

뚜렷한 쟁점사항이 부각되지 않고 있는 올해의 상황에서 투쟁의 중심노조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자동차산업구조조정 문제'나 '중앙은행 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문제' 등 해당 조직 차원의 쟁점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투쟁이 이어지면 투쟁의 선봉에 서는 노조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뚜렷한 투쟁전선이 형성되기 쉽

지 않은 올해와 같은 상황일수록 몇몇 투쟁노조 중심이 아니라 민주노총 전 조직 차원에서 투쟁시기를 집중하고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정치 경제적 조건이 매우 어렵다

현재의 정세는 경제위기론의 공세속에 노동자의 투쟁 자체가 국민적인 관심과 호응을 받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고 또 여야 정당의 대권후보 선출과정과 맞물려 온 국민의 관심이 대선으로 쏠려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입단투 자체가 사회적인 쟁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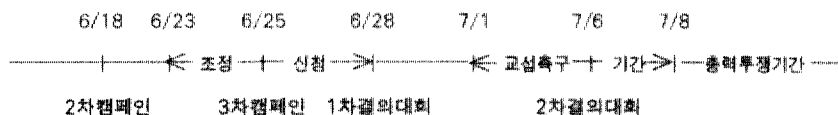
그러므로 '삼성그룹의 자동차산업 진출 문제'나 '한국은행 독립 문제' 등과 결합하여 13대 사회개혁 요구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해를 구하면서 이를 전국적인 쟁점으로 부각시켜내고 또 한편으로 해당 노조들의 투쟁과 민주노총 차원의 지지 연대를 바탕으로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투쟁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투쟁을 전망해보자.

먼저, 올해 총력투쟁의 시기는 각 조직의 투쟁일정을 감안해봤을 때 7월 9일 이후에 투쟁을 집중하고 그 전까지 조정신청, 생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총력투쟁에 대한 결의를 모으기 위해 충실한 사전투쟁을 배치해야

### 총력투쟁의 상



한다.

이를 위해서는 6월 19일의 중앙위원회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총력투쟁계획을 선포하고 6월 28일 14:00시를 기해 전국동시다발로 '1차 총력투쟁 결의대회' (수도권은 종묘집중)를 가진 후 7월 6일 15:00시에 전국중앙집중으로 여의도광장에서 '2차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를 '교섭촉구기간'으로 설정하고 각 조직별로 날짜를 돌아가면서 출근투쟁, 중식시간 집회, 합동간부 결의대회 등 조건에 맞는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전에 정치 경계개혁투쟁을 힘차게 전개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문제나 한국은행 독립 문제는 국민적 호응을 받을 수 있는 호제이고 민주노총이 늘상 주장해왔던 사회개혁요구들이다.

따라서 한편으로 국민들에게 민주노총

의 13대 요구를 널리 알리기 위해 6월 11일과 18일에 이어 6월 25일까지 3차에 걸친 전국동시다발 정치 경계개혁 캠페인을 전개하고 13대 요구에 대해 민주노총과 정부가 만나 협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하고 국회, 노개위, 행정부 등을 상대로 중앙 상근인원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여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7월 9일 이후 힘찬 총력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 때는 파업하는 사업장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60만 조직력을 동원한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첫째, 임단협으로 파업이 가능한 사업장은 즉각 '파업'에 돌입하고 둘째, 임단협으로 파업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임단협 4대 요구와 사회개혁 13대 요구 가운데 쟁점사항을 몇 개로 압축하여 전국동시에 '중식시간 집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셋째, 파업사업장이 있는 지역은 지역본부 주관으로 '지역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